

### 농진청, “여름철 과수화상병균 확산 차단 관리해야”

# 장마 전 물길 정비 · 매몰지 토양유실 방지

#### 비 온 직후 과수원 출입 주의

여름철 기온 상승과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무렵 예상되는 장마비의 영향으로 과수화상병균(이하 화상병균)의 감염·전파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수원 내 물길(배수로) 정비와 매몰지 토양유실 방지에 힘써 달라고 9일 당부했다.

화상병균은 습도가 높고 온도가 섭씨 25~27도가 되면 잠적 형태로 유출된다. 화상병균은 빗물을 타고 흘러 다른 나무로 이동하거나 가위나 톱, 장갑 등 작업 도구에 묻어 나무 간 감염을 일으키고, 다른 과수원으로 전파



과수화상병균 잠적 열매

될 수 있다.

사과·배 재배 농가는 장마 전 미리 물길을 정비해 다른 과수원으로 빗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비가 오거나 그친 뒤 바로 과수원에 들어가 농작업을 하면 작업 도구나 작업복이 화상병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가 그치고 과수원 내 빗물이 완전히 빠진 뒤 출입해야 한다. 매몰지 끝난 과수원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흩어 쓸려 내려갈 수 있으므로 매몰지 경사지에 비닐 덮개를 덮어주고 물길을 정비해 빗물이 다른 과수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 사과·배 과수원 및 묘목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2차 발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 대상지역 병 발생 실태를 추가 조사하고, 농가의 실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과수화

상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과수원 또는 기후 관리 방법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컨설팅)한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은 전국 146농가 67.4헥타르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농가는 약 54퍼센트 감소했고, 발생면적은 약 55퍼센트 줄었다. 하지만, 비가 연속해 내린 이후 온도와 습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과수화상병 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과수농가에서는 자가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나 전국 병해충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

를 위해 올해부터 사전 예방 및 집중 방역관리로 대응체계를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12~3월) 전국 사과·배 나무 껍질 제거 완료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합동 예방 및 의심 주 집중점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모형 활용 적기 방제 및 약제 방제 확대 체계를 구축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은 “해마다 비가 연속해 내린 이후 과수화상병 발견 신고가 증가하고, 7월 하순부터 9월까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인다”며 “올해 추석은 여느 해보다 일러 명절 성수품인 사과, 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농가에서는 장마기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공급 김제 하동 본아르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김제 하동 본아르떼 아파트는 (유)더본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김제시 하동 387-31의 16필지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세대수는 총 5세대(확정추천 3세대, 예비추천 2세대)다.

추천자 선발은 매직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정요소는 수산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중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정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여름휴가, 이제 떠나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내달 31일까지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7월 31일까지 여름 휴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NH농협 개인 신용·체크카드(체크/비씨)로 국내·외 전자결제에서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용금액 50만원 당 추가 추첨권(최대 10매)이 부여되며, 해외 가맹점 이용 시(온라인 해외가맹점 포함) 이용액에 가중치 2배가 적용된다.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하루 나투어 여행상품권 300만 원을 제공하며, 이외 당첨고객에게도 여행상품권·여행용캐리어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 및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카드 스마트앱(app)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경민 본부장은 “최근 엔데믹 전환으로 국내외 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그에 따른 적합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고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3CO)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말 예정된 ‘스마트 수변도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전 설명회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3CO)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말 예정된 ‘스마트 수변도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전 설명회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윤상 기자

##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 중기중앙회,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지급지원 및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등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지협동조합 이사장, 황형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현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지급방

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지급방안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기업부 거버넌스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약관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

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를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노력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여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및 확대를 업종별로 납품단가 예외 및 불공정거래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9일 2022년 자산관리 특화점포로 선정된 전북영업부에서 WM 특화점포 공식 명칭 ‘NH AI100 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올 자산관리 특화점포’ 선정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영업부서 ‘NH AI100 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본부장 장경민)는 9일 2022년 자산관리 특화점포로 선정된 전북영업부에서 WM 특화점포 공식 명칭 ‘NH AI100 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NH AI100 종합자산관리센터’는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점포로 일반 영업점보다 전문적인 부동산 세무 등의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타행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농협은행의 고객층을 위해 전국을 무대로 하는 ‘내중적 자산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자체 ‘금융MBA WM과정’ 및 ‘자산관리 전문역량 양성과정’

등 종합자산관리 분야 최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컨설팅 실무역량을 겸비한 고급 인력들을 활용해 지역별 종합자산관리 분야 거점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현재 49개소인 WM특화점포를 2025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중장기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장경민 본부장은 “WM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현재 진행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중에 있다”며 “고객님의 자산증식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진정성 있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미등록 장애인 권익향상 앞장

###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관협회와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9일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중장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153명의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장애인 등록지원으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와 주민 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16

개 시·도지회 및 454개소의 사회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약 700만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 협력방안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Fast-track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심사비용도 지원한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협력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건협-전북대산학협력단

### mHealth NCD 관리 착수단 파견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기환)은 우리나라 대외무사원소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손익상) 민간협력사업 ‘캄보디아 프렉트노우 mHealth를 활용한 NCD(비 전염성질환) 관리 사업’ 착수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업 착수단을 파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착수단은 프렉트노우 후속병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MOU 체결식과 제1차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현지 전문가와 검사장비 및 보건정보시스템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사업 대상지역을 방문하여 마을 환경 조사와 지역주민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사업 착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김윤상 기자

#### 정읍 농어촌공

### 수질환경 보전회의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는 지난 8일 정읍시 고부면 소재 정우저수지에서 올해 1차 수질환경 보전회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여 정읍지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각계 역할분담과 녹조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지자체, 학계, 환경단체, 농업인 대표, 지역주민대표 및 정읍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수질환경 보전회 위원들은 정우저수지 제방 및 저수지 주변의 생활쓰레기 수거를 병행하며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통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기수 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읍지역 농업용수의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을 통해 청정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